

# 금융산업의 발전방향과 공동학회의 역할 및 미래

정 형 찬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2018년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발표회

# 주요 이슈

1. Blockchain, AI 등 FinTech이 금융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한국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은?**
2. FinTech이 금융혁신을 주도한다면, 공동학회가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3. 공동학회의 **당면 과제와 운영 상의 개선책 및 미래 신사업은?**

# I. 한국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 1. FinTech 출현에 따른 새로운 금융생태계 구축

- Blockchain 등 FinTech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Potential annual net savings with Bitcoin based on 2013 volumes

2013 Market Size (\$bn)	Retail	E-commerce	Remittances
Dollar volume by market	10,383	609	549
Prevailing average pricing	2.5%	2.9%	8.9%
Bitcoin pricing	1.0%	1.0%	1.0%
Prevailing transaction fees	259.6	17.8	48.9
Bitcoin transaction fees	103.8	6.1	5.5
<b>Potential savings with Bitcoin (\$ bn)</b>	<b>155.7</b>	<b>11.8</b>	<b>43.4</b>

Source: Goldman Sachs, Top of Mind, 2014, p. 21.

- Blockchain은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시스템으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금융인프라에 전대미문의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Shared  
Ledger

Smart  
Contracts

Trust

Privacy

***“The unstoppable force of blockchain technology is barreling down on the infrastructure of modern finance.”***

**Tapscott, A. and Don Tapscott, 2017, *Harvard Business Review*.**

## 부문별 금융인프라 구조변화

구 분	구조변화
국제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은행 및 SWIFT 등 기존 인프라를 분산원장 시스템이 대체(Ripple 등)</li> </ul>
자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발행, 등록, 거래 등이 크게 효율화되고 기존 중개기관의 기능 축소</li> </ul>
무역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무역금융 절차가 자동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고발생 확률이 감소</li> </ul>
규제준수 및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데이터의 실시간 보고, 감사가 가능해지고 기관간 비교 및 통합이 용이</li> </ul>
AML/C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신원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지고 규제준수비용 절감</li> </ul>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자동화되고 보험사기 위험 감소</li> </ul>
P2P대출 및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마이크로보험 활성화</li> </ul>

자료원: 한국은행, 분산원장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2016, p. ii.

Digital  
businesses are  
**disrupting**  
industries and  
prof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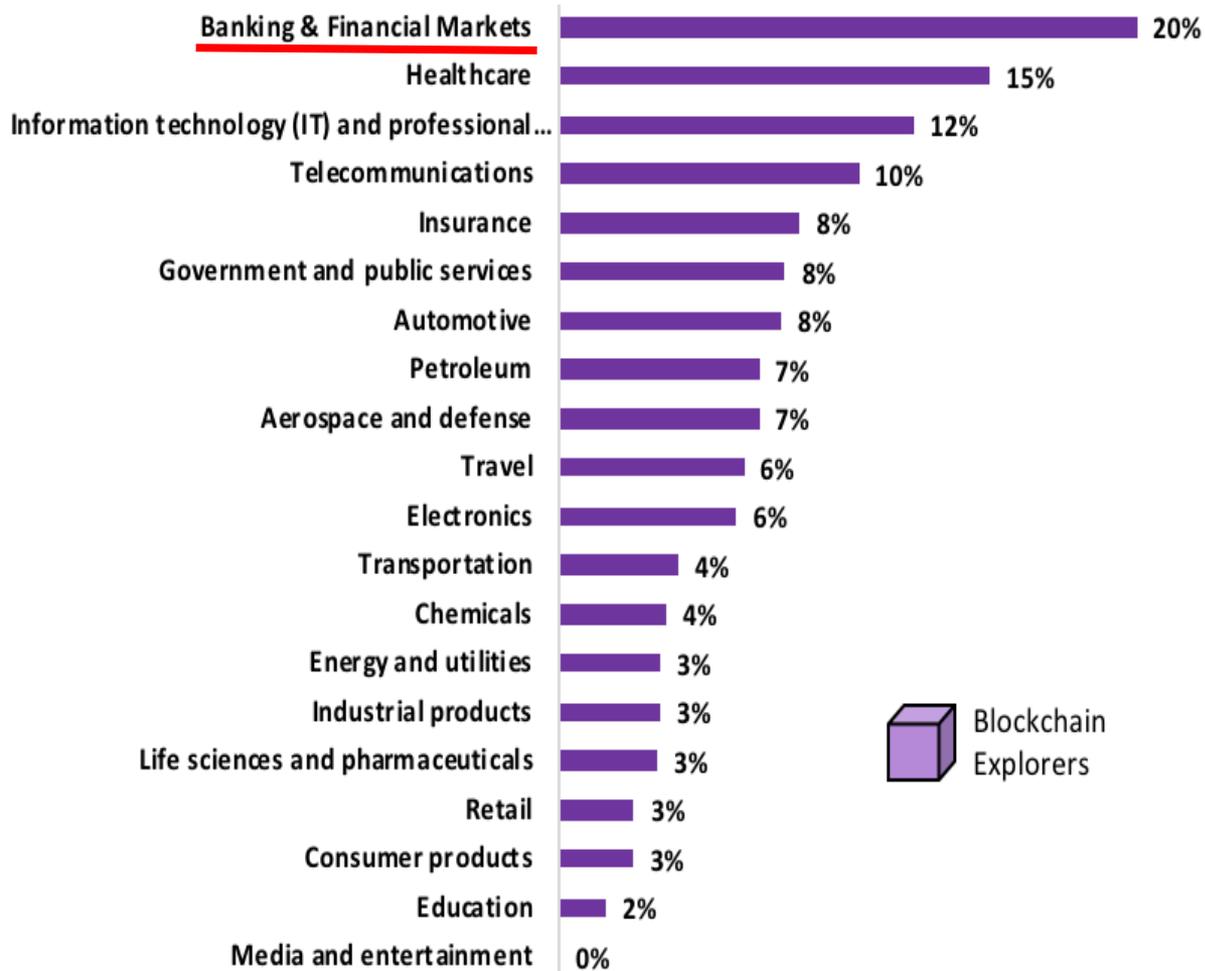
**72%** are vulnerable  
to disruption  
within *three* years

Source: FROM DATA TO DISRUPTION: INNOVATION THROUGH DIGITAL  
INTELLIGENCE IBM-sponsored report by Harvard Business Review  
Analytic Services, 2016



Source: Wallis, Blockchain Now, 2018, p. 3.

## % Blockchain Explorers across indus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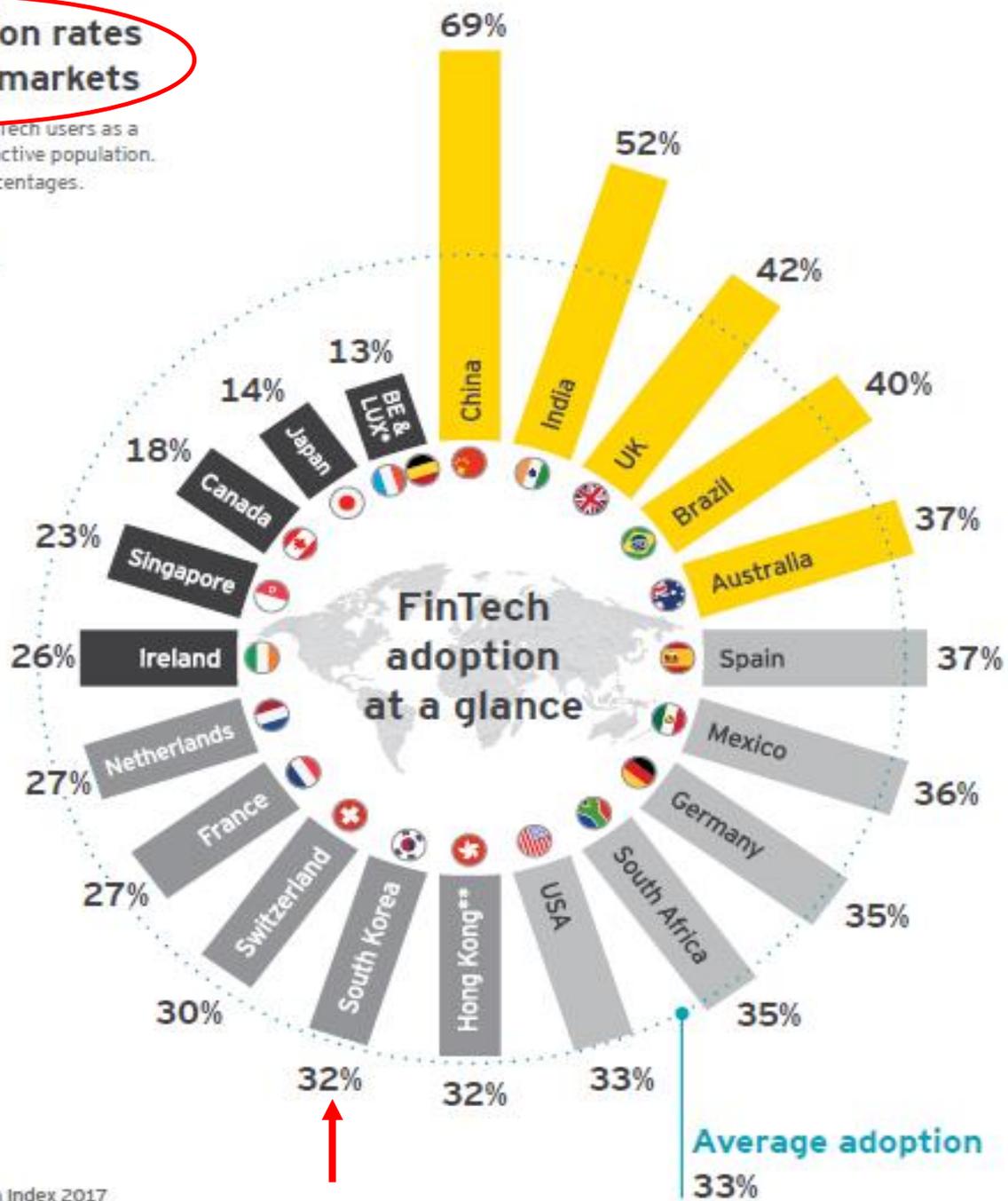
Source: Wallis, Blockchain Now, 2018, p. 6.

- Blockchain 관련 FinTech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술 혁신의 촉진과 금융생태계 육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금세탁, 탈세,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설계
  - ICO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규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인 Blockchain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
  - Blockchain, 암호화폐와 ICO는 모두 Blockchain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므로 Blockchain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ICO의 동시 활성화가 필수적임

# FinTech adoption rates across our 20 markets

Notes: The figures show FinTech users as a percentage of the digitally active population. All figures are shown in percentages.

\*Belgium and Luxembourg  
 \*\* Hong Kong SAR of China



## Top 10 ICO Raises in 2017



Source: Sang Lee, The Future of the ICO, 2018, p. 7.

# Initial coin offering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n **initial coin offering (ICO)** or **initial currency offering** (derived from **initial public offering**) is a means of **crowdfunding** centered around **cryptocurrency**,<sup>[1][2]</sup> which can be a source of **capital** for **startup companies**.<sup>[3]</sup> In an ICO, a quantity of the crowdfunded cryptocurrency is sold to **investors** in the form of "tokens", in exchange for **legal tender** or other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or **ethereum**. These tokens supposedly become functional units of currency if or when the ICO's funding goal is met and the project launches.

ICOs provide a means by which startups avoid costs of regulatory compliance and intermediaries, such as venture capitalists, bank and stock exchanges,<sup>[4]</sup> while increasing risk for investors.<sup>[5]</sup> ICOs may fall outside existing regulations<sup>[6][7]</sup>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or are banned altogether in some jurisdictions,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sup>[8][9]</sup>

North Korea?

- 정부는 FinTech 선진국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규제 및 감독 체계를 연구해 FinTech 전반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및 감독 문제를 해결할 필요
  - Blockchain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정비 속도가 너무 느려 한국 FinTech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 Blockchain 생태계의 육성이 미래 금융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건전한 ICO는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

## 2.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에서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직접금융보다는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

	한국		미국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비중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비중	
	대출금 대비 주식	대출금 대비 주식 및 회사채	대출금 대비 주식	대출금 대비 주식 및 회사채
2008년	1.2	1.4	4.6	6.0
2009년	1.6	1.9	7.4	9.3
2010년	1.9	2.1	10.1	12.4
2011년	1.7	2.0	9.2	11.5
2012년	1.8	2.1	9.7	12.1
2013년	1.8	2.1	12.1	14.5
2014년	1.7	1.9	12.3	14.7
평균	1.7	1.9	9.3	11.5

자료원: 금융투자협회, 국내민간기업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지속적 감소, 보도자료, 2015. 4. 29.

-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에 비해  
규제가 많고 독점력도 높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IT, Bio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  
—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은 IT, Bio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위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함
- 효율적인 자본시장(주식, 채권, 외환) 육성을 통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독자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3. 대형 투자은행의 육성을 통해 한국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 증권회사의 자산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50개 이상의 증권사들이 난립해 국제경쟁력이 취약
  -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2017 Interbrand Brand value 세계 6위로 부상, 금융업에서는 아직 100위권에도 들지 못함
  - American Express 27위, J.P.Morgan 30위, AXA 42위, Goldman Sachs 44위, PayPal 80위
  - HSBC 47위, Allianz 49위, Santander 68위

# Interbrand Best Global Brands 2017

01



184,154 \$m

02



141,703 \$m

03



79,999 \$m

04



69,733 \$m

05



64,796 \$m

06



56,249 \$m

07



50,291 \$m

08



48,168 \$m

09



47,829 \$m

10



46,829 \$m

- 한국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투자은행의 육성**이 시급
  - 증권사 간의 M&A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함으로써 투자자를 위한 자산관리와 실물경제에 위험자본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PBS(prime brokage service)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투자은행의 국제 금융시장 진출을 유도**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뉴욕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한 PBS 사업에 진출)

##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2017년 말 현재 약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5.5%, 금융 자산 대비 부채비율 46.0%으로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 (2017년 3/4분기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로 발행했다는 점을 인식해서 금융감독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
  - US 10-year Bond Yield가 지난 4월 말 3%를 돌파
  -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돌파

*The* AMERICAN FINANCE ASSOCIATION  
Publishers of *The Journal of FINANCE*

**“FinTech - How Will it Transform  
Financial Markets and Services?”**

**January 5, 2018**

## II. FinTech에 의한 금융혁신과 공동 학회의 역할

### 1. 연구 분야

-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아니면 상품 혹은 증권인가?
  -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
  - 중앙은행의 Blockchain 기반 디지털 화폐(CBDC) 발행
- Bitcoin 등 암호화폐 가격은 거품인가?
  - 암호화폐 가격결정모형
- 암호화폐 시장은 효율적인가?
  -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과 운영효율성 (해킹, Blackout 등)
  -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효율성

- 암호화폐는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암호화폐와 주요 경제 변수와의 관련성 및 헷징 기능
- Blockchain이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Blockchain을 활용할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불건전한 ICO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 외부감사제도, Nominee, Escrow 시스템 등

## II. FinTech에 의한 금융혁신과 공동 학회의 역할

### 2. 교육 분야

- Blockchain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촉진할 경우 대학과 학회는 **Financial Economics, Law 뿐만 아니라 Computer Science** 지식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
-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융합형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공동 학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THE 5 BEST US BUSINESS SCHOOLS FOR BLOCKCHAIN COURSES

US BUSINESS SCHOOLS ARE TAPPING INTO BLOCKCHAIN'S POTENTIAL, INCORPORATING IT INTO THEIR MBA CURRICULUM

Written by Nick Storring  
14 Feb 2018  
MBA North America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Duke University Fuqua School of Business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aas

MIT - Sloan School of Management



Source: BusinessBecause, 2/14, 2018

## [국제] 하버드생 12%가 신청한 **최고 인기강의 'CS50'**는?



좋아요 58개



가- +가

김정현 인턴기자 캔자스주립대 졸업



▲ 하버드대 대강당에서 데이비드 말란 교수가 CS50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photo 비즈니스 인사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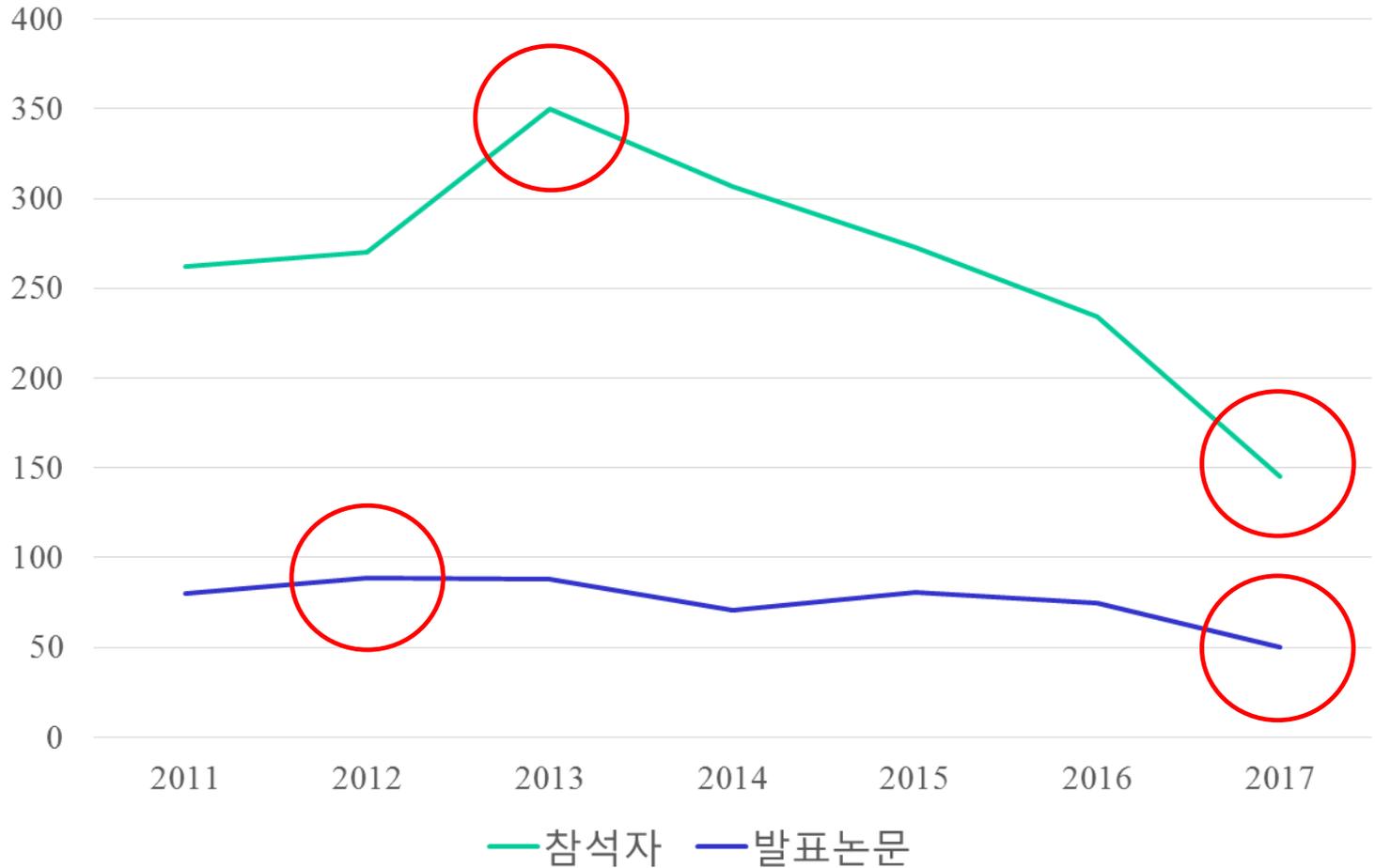
2014년도 가을학기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학생을 불러모은 강의가 탄생했다. 학부 학생의 12%가 수강신청을 했다. 과목명은 'CS50'. 그동안 하버드대학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과목으로는 탈 샤하르 교수의 '긍정의 심리학'과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다. '경제학10'과 '통계학104'와 같은 스테디셀러 강의도 있다.

# III. 공동 학회의 당면 과제와 미래

## 1. 공동학회의 당면 과제

- 저출산·고령화와 SCI 논문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등으로 최근 공동학회에 **참석하는 회원과 발표 논문 수가 급감**
  - 참석회원: 350명 (2013) → 145명 (2017)
  - 발표논문: 89편 (2012) → 50편 (2017)
- 지난 25년간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이론적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공동학회로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

## 공동학회 참석자 및 발표논문 수의 연도별 추이



### III. 공동 학회의 당면 과제와 미래

#### 2. 공동학회 운영 개선 방안과 미래 신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이번 공동학회 25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공동학회 실무준비위원회에서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e-mail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기간: 1차 4/4-4/16, 2차 4/23-4/27
- 5개 학회 총 72명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

●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72명 회원들의 개인 특성

— 연령: 30대 16명 (22%)      40대 21명 (29%),

50대 24 (33%)      60대 10명 (14%)

— 성별: 남성 61명 (85%)      여성 11명 (15%)

— 직업: 교수 61명 (85%)      연구원 5명 (7%)      대학원생 4명 (6%)

— 근무지: 수도권 48명 (67%)      경상권 12명 (17%)

전라권 5명 (7%)      충청권 3명 (4%)

— 학회: 재무관리학회 33명 (17%)      재무학회 45명 (24%)

증권학회 54명 (28%)      파생상품학회 43명 (23%)

한미재무학회 15명 (8%)

● 공동학술발표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개선 방안

— 만족도: 매우 만족 4명 (6%)      만족 37명 (51%)

          보통 25 (35%)                      불만족 6명 (8%)

— 참여도: 2번 이상 참여 32명 (44%), 2번 이상 불참 39명 (54%)

— 불참 이유: 개최지 지리적 접근성                      25명 (44%)

          업무 상 이유(강의와 보직)                      17명 (30%)

          기타 (연구년, 가정사 등 )                      9명 (16%)

          학회 프로그램의 부실                              3명 ( 5%)

          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                              2명 ( 4%)

          학회 운영의 비효율성                              1명 ( 2%)

● 현 개최 장소인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의 지리적 접근성

— 접근성: 좋음 20명 (28%)      불편함 52명 (72%)

— 개선안: 서울 소재 컨벤션 센터나 호텔      28명 (54%)  
          광역시 소재 컨벤션 센터나 호텔      16명 (31%)  
          대중소 도시 소재 컨벤션 센터나 호텔      1명 ( 2%)  
          기타      5명 (10%)

\* 서울 소재 대학

\* 대도시와 지방도시 소재 대학 혹은 기관시설

\* 제주도, 해운대 추천

\* 천안아산역, 천안역 외 천안터미널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 운영횟수가 증가

## ● 공동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

### — IT 학회와의 융합학술발표회 개최

개별학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	26명 (36%)
융합학술발표회는 시기상조	14명 (19%)
공동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27명 (38%)
기타	3명 (4%)

\* 연구회를 조직하여 관심있는 학자들의 정기적  
세미나를 모색

\* IT분야 학회에 융합연구가 우선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발표할 논문이 없다.

— 공동학회 기간 중 금융전문가 채용시장 개설

채용기관의 호응도가 낮아 실패할 것	14명 (19%)
채용시장 개설이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	10명 (14%)
공동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47명 (65%)

— 외국학회와 교대로 정기적 공동학술 발표회 개최

개별학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	24명 (33%)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	17명 (24%)
공동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29명 (40%)
기타	1명 ( 1%)

\* 중국, 일본은 대응 학회가 없어 적절한 상대국 선정이 필요

\*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할 뿐 효과가 없음

—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학회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운영 개선책과 신사업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① <u>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로 개최지 변경</u>	44 (61.1%)	8 (11.1%)	4 ( 5.6%)
② <u>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과정의 개선</u>	14 (19.4%)	28 (38.9%)	7 ( 9.7%)
③ 논문 편당 발표 및 토론 시간의 연장	4 ( 5.6%)	2 ( 2.8%)	10 (13.9%)
④ <u>특별심포지엄 주제 선정 과정의 개선</u>	1 ( 1.4%)	10 (13.9%)	8 (11.1%)
⑤ IT 관련 학회와의 융합학술발표회 개최	1 ( 1.4%)	6 ( 8.3%)	6 ( 8.3%)
⑥ <u>금융전문가 채용시장 개설</u>	6 ( 8.3%)	7 ( 9.7%)	21 (29.2%)
⑦ 외국 학회와의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1 ( 1.4%)	7 ( 9.7%)	11 (15.3%)
무응답	1 ( 1.4%)	4 ( 5.6%)	5 ( 6.9%)
합 계	72 (100%)	72 (100%)	72 (100%)

## — 학회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타 의견

- \* 우수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저자가 원할 경우 개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우선권이나 혜택을 부여

  - 각 개별학회 혹은 주관학회에서 특별호를 발간

- \* 토론자의 토론 자료를 미리 제출 받아 요약서를 책자로 제작하고,

  - 1일/2일차로 구분하여 우수 토론자를 선정

  - 대학원생이나 비전문 연구자를 토론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

- \* 특별심포지엄의 주제를 시사적인 내용보다는 학술적인 측면에 맞추는 게 바람직

- \* 공동학회 참여 회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학회 간의 통합을 고려할 시점

### 3.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최근 공동학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학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학회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회 운영 방안**
  - 공동학회 개최 장소를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변경
  -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과정의 개선
  - 개별 학회 혹은 주관 학회의 특별호 제작을 통해 우수 발표 논문에 한해 게재 우선권을 부여
- 공동학회의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사업**
  - 공동학회 기간 중 금융전문가 채용시장 개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